

메아리치는 自然사랑 메시지

—'93 全國自然公園大會를 마치고—



李 賢 宰
(國立公園協會 會長)

바야흐로 “삶의 質”이 云謂되고, 이른바 아메니티(amenity)가 우리들의 生活環境을 말하는 核心的 用語로 자리잡은지 이미 오래이다.

日常生活에서의 快適感과 더불어 美와 自然을 한꺼번에 渴求하는 것이 現代人이라면, 美이기도 하고 自然이기도 한 것, 이 兩側面을 함께 갖추고 需要를 充足시켜 줄 수 있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국립공원이야말로 이 두가지 要件을 兼備한 큰 스케일의 存在임에 틀림없다. 우리나라의 代表的 自然景勝이기에 제각기 特徵있고, 多様な 風景美를 두루 간직하고 있거니와 그것은 곧 각종 스트레스와 無味乾燥에서 해방되어 自然의 품안에 안기고 싶은 現代人들에게 自然의 싱싱한 潤氣와 香薰을 가장 풍성하게 제공해주는 寶庫인 것이다.

따라서 국립공원이 포용하고 있는 이같은 自然資源의 特異성과 生態의 健全性, 그리고 景觀의 多樣性은 제대로 保全維持되어야 하는 것이다.

新鮮하고도 感動的인 아름다운 자연풍경과의 만남! 이 얼마나 가슴설레이는 멋진 일인가. 여기서 우리는 번뜩이는 靈感을 얻고 새로운 創造를 위한 再充填을 한다.

* * *

허공을 향해 외쳐댄 것 같았던 애뜻한 “자연사랑”의 메시지가 모처럼 전국도처에서 메아리쳐 흐르고 있다.

국립공원협회 멤버가 되겠다는 이가 줄을 잇는 것이다. 學者, 企業人, 셀러리맨, 教師, 大學生 할 것 없이 同參者가 날로 늘어난다.

綠色운동 중에서도 가장 次元높은 국립공원운동의 隊伍에 함께 발맞추겠다는 고귀한 뜻의 發露이리라.

사실 우리들 개개인의 힘이야 그다지 強力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組織에 의해 뭉쳐진 단결된 힘으로 뽑어내는 熱氣는 엄청난 上昇作用과 波及효과를 빚어낸다.

우리는 요얼마전 德裕山 기슭 茂朱벌에서 全國自然公園大會를 史上 처음으로 치른바 있다. 수려한 錦繡江山 자연산천을 지키고 가꾸는 先導勢力으로서, 또한 오직 하나뿐인 地球살리기에 앞장서는 前衛의 役軍을 自任하여 京鄕各地에서 구름처럼 모여든 것이다.

이곳에서 다진 우리들의 굳건한 결의와 一體感은 조금도 흐트러짐없이 綿綿하게 계승되어야 한다.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을 에워싼 가운데 신명나는 사물놀이의 구성진 가락속에 터진 감격의 함성——

그 벽찬 感激을 안고 한결같이 精進하자는 것이다. “지속적인 安定高度成長”은 經濟에 局限되는 命題가 아니다. 發展을 志向하는 모든 일들의 必須條件이다.

지난날 우리는 行事を 위한 行事を 수없이 겪었으며 一過性 운동의 시답잖은 모습도 허구 많았어 보였다. 그런 前轍을 행여 밟지 말아야 한다.

곳곳에 자리잡은 국립공원과 각급 자연공원의 特色을 최고도로 살려서 年輪을 쌓아갈수록 더욱 알차게 意義깊게 昇華시켜 가자.

會員동지 여러분의 加一層의 奮發과 관계당국의 誠意있는 對應이 要望된다.